

## 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연구

김 경 진\*

한국재활복지대학 수화통역과 교수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농인들의 생활문화 중에서 가정에서의 문화를 살펴보고 농문화를 이해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4명의 농인들을 심층 면담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농인 가정은 농부모와 농자녀, 그리고 농부모와 청인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고 그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농자녀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청인부모가 사용하는 음성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수화를 습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농인들은 그들의 가정생활이 청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농인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농부모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세탁과 아기 돌보기 등 가사노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친척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각장애로 인하여 자녀 양육 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주제어 : 농, 농인, 농문화, 농부모, 청인부모

### 1. 서론

문화는 하나의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문화는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익힌 생활양식들은 사회를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문화는 청인의 눈에는 색다른 문화로 보일 수 있으나 농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농사회를 구성하는 행동 양식이며 농인들의 다양한 문화인 것이다. 그러나 농인들은 청인문화와 농인문화 사이에서 이중문화로 인하여 겪게 되는 문화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Brueggemann, 1999), 청인과 함께 하는 생활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인과 함께 하는 문화보다 농인들과 함께 하는 문화에 더 익숙해져 있으며(김경진, 2004), 청인들이 생활하면서 하는 행동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Sue, 1990). 농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만나는 청인들에 대한 중압감으로 그들과의 대화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 교신저자(kimjin@hanrw.ac.kr)

수 있다. 따라서 농인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농문화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요구된다.

농인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농문화를 위한 습관과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가족 내 대화의 다양화와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 문화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은정, 2005). 또한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김경진, 2004). 농인들이 사회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사회를 인정하고 이와 함께 농인들의 생활양식인 농문화도 인정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Paul & Jackson, 1994). 또한 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농인들을 위하여 자녀들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살펴보고 농인과 청인이 함께 생활하는 농가정의 의사소통 형태와 가족들 간 가족애는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구명할 필요성이 있다.

최성규(1999b)는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문화권에서는 농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농문화를 인정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요인보다는 청인 중심의 우월주의와 수화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 더욱 큰 장애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농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한국적인 농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개발되어야 한다. 농문화를 수용하고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농인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그 해결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가족 내에서 가족 간의 대화를 위한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농인 가족을 위한 관계 설정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이준우, 2003). 그러기 위해서는 농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사회와 농인들의 문화와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Senghas & Monaghan, 2002).

농인들의 가정생활 문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농인들의 문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농인의 가족 구성을 보면 대체로 농인과 청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농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많지 않다. 농문화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농인이 태어나지 않으면 농문화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한 가정에서 청인과 함께 하는 농인들의 문화도 청인 문화로 인하여 다음 세대로 전승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다수가 공유하는 농문화의 전승도 수월하지 않다. 농문화의 지속적인 유지와 계승을 위해서는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농문화에 대한 실체가 명확하게 구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가정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농문화의 실체를 구명하기 위하여 농인 가정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고충과 가정에서의 의사소통 형태에 따른 가정생활 문화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서 서울에 거주하는 농인들의 성별, 연령, 계층, 직업, 자녀의 유무, 배우자의 장애 유무, 자녀의 장애 유무, 결혼 여부에 따라 4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가족 구성은 다음과 같다.

A는 회사에 다니는 30대의 기혼 남성으로 배우자가 청각장애인이며 1남 1녀의 자녀들은 모두 청인이다. B는 20대의 대학생으로 미혼 여성이며 청인 부모와 청인 형제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C는 40대의 기혼 여성으로 남편과 1남 1녀의 자녀가 청각장애인인 농인 가정이며, D는 자영업을 하는 30대의 기혼 남성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청인이다.

연구 참여자 중 가족 모두가 농인인 한 가정과 농인과 청인이 함께 하는 세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농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제외한 세 가족 구성원은 농인보다 청인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 2. 연구 방법 및 절차

농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농문화의 현상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문화생활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 및 세분화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조사지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4명을 연구자들이 편하다고 하는 각각의 다른 장소에서 만나 개방형 질문으로 농인의 가정생활에 대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답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부분 농인들로 연구 참여자와 수화로 질문을 하고 농인이 수화로 답한 내용을 동시에 연구자가 육성 녹음하면서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 3. 자료 분석 및 해석

농인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질적 분석을 위하여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내용을 수집하였으며,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분석 및 해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와의 개별 면담 실시 후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녹음한 내용들

을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하여 전사하였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주제를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기술 내용을 기록하였으며, 면담 중에 나타난 농인들의 수화 표현은 농인들의 사실적인 표현을 위해서 그대로 전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면담 내용은 국어 문법 구조에 맞게 연구자가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농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게 된다. 수화를 모르는 가정에서는 부모·자녀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에서 가정에 맞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개발하여 구화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자녀들은 가족과 상호작용하여 사회화되고, 의사전달 방법과 사회생활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주고, 자녀를 더 건강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 구성원을 보면 대체로 농인과 청인이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 대부분이며 부모가 농인이면서 자녀가 농인인 가족과 자녀가 청인인 가족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 참여자의 가족 구성원들은 농인만 있는 가족보다는 농부모와 청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이 더 많았다.

연구 참여자 중 B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기혼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려운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집사람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가 가장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에 데려왔는데 애기 키운 경험도 없고 우리가 들리지 않고 처음에는 정말로 어려웠어요. 애기가 울 때는 어디가 불편해서 우는데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아기는 더 아파서 점점 더 크게 울어요. 옆집에서 어른 없는 줄 알고 달려와서 애기 우는 것을 말했어요. 매일 아이 엄마가 혼자 있으니 힘들어서 나중에는 2시간마다 교대로 아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자지 않고 아이 보살폈어요. 그러나 내가 내일 출근을 해야 하는데 또 힘들게 하루 일하다가 와서 2시간마다 아기 분다는 것도 힘들어요. 고생 많이 있어요. 애기들이 조금 크면서 아빠, 엄마하고 불러도 대답도 잘 주지 못하지만 훌륭하게 키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A와의 면담).

A와 같이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세탁, 아기 돌보기 등 가사노동이 급증하는 시기에

여러 가지 고충이 많겠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 양육이라 할 수 있다. 유아기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성질이 단순하여 주로 어머니의 전적인 보호 하에서 수유·배설 및 휴식 등을 위한 요구가 충족되는 가운데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초가 이루어진다. 부모는 지도나 보호의 입장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대우하게 되고, 자녀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가족 내의 종속적 구성원으로 형성된다.

연구자가 선정한 연구 참여자의 가족 구성은 다양하였다. 농부모 밑에 농자녀인 가정과 농부모 밑에 농인 자녀와 청인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농부모 밑에 청인 자녀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농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 밑에 청인 자녀가 있고, 청인 아버지와 농인 어머니 밑에 청인 자녀로 구성된 가족도 있다. 이들은 자녀 양육과 자녀 교육에는 모두 같은 마음이었으나 생활면에서 각 가족 구성원들에 따라 느끼는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가족 구성에서 나타나듯이 가정 문화에서는 농문화를 전승할 세대 간 전승 가능한 후손이 없으며, 청인 자녀와 함께 있는 농부모들의 농문화는 가족 간 농문화를 형성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농문화는 첫째, 문화를 계승할 공통 언어가 필요하며, 둘째, 문화는 전통을 갖게 되고 문화적 전통을 계승할 후손이 있어야 하고, 셋째,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세력이 필요하다(최성규, 1999)는 정의는 농인들만이 모여서 활동하는 곳에서는 가능하지만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가정에서는 그 문화를 충족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부모와 농자녀가 한 가족을 이루고 있는 C의 가정에 대한 생활을 알아보았다.

우리 집은 네 식구인데 모두 청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수화로 대화 합니다. 때문에 우리 집은 농인과 청인이 함께 사는 집과 같이 어려움 없어요. 아기 엄마가 농인이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장애인이 없어요. 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수화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려움도 없으며, 지금은 외출보다 집에 오면 마음이 더 편하고 좋아요.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 나쁜 행동 조금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잘 하고 편안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컸다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집에 오면 자기 방에 들어가면 밥 먹을 때나 얼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밥 먹을 때 아니면 잘 볼 수 없어요. 자식들이 밖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뭐가 고민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대화를 많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있어요(C와의 면담).

C는 네 식구가 모두 농인이며 청인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보다 의사소통이나 생활면에서 편안함을 느낀다. 농부모 밑에서 자라는 농자녀는 정체성이나 의사소통 면에서 갈등을 겪지 않는다. 언어 장벽 없이 수월하게 가족끼리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언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한다. 농자녀들

은 성장과 더불어 정체성이 형성되면 농문화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화 발달을 촉진시킨다(최성규, 2000; Simon, 1994; Strong, 1995; Tompkins, 2000)고 한 것과 같이 농인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부모가 농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농정체성이 확립되고 수화도 자연스럽게 일차 언어로 자리 잡기 때문에 수화로 인하여 가족 간 의사소통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친근감을 더 느낄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농인인 농아동들은 부모가 청인인 청인 아동들과 생활면이나 가치관 정립 면에서 동등하게 생각하며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대개 자신의 자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Meadow, 1981).

남편과 자녀 둘이 모두 농인인 C가족의 가정생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집은 제가 농인이고 남편도 그리고 아이들도 모두 농인이라서 특별히 어려움 없어요. 또 모든 대화를 수화로 하니 의사소통도 잘 되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러나 다른 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손님이나 친척이 오면 답답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통역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친척들이야 우리가 농인인 것을 아니까 특히 형제간에는 자라면서 항상 대화를 하고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많이 불편하지는 않지만 함께 살지 않았던 식구들은 수화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아이들 키우는 걱정과 돈 걱정이 가장 많아요. 농인들이 보통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다른 농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힘들게 살고 있어요. 농인이라고 특별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말할 것이 없어요. 잘 몰라요... (C와의 면담).

농인들만 사는 가정에서 가족들과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수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부모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농아동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동일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을 겪지 않는다. 그리고 농부모에게서 태어난 농아동들은 농을 결핍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청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농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갖거나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Ogbu, 1996)고 한 것과 같이 이는 농아동이 자신을 장애로 보거나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상대하지 않을 때까지 자신의 장애 정체성에 대하여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나 청인들의 반응에 따라서 장애를 인식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농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게 된다. 이때부터 장애나 농에 대하여 자신이 바라보는 사회적 기준에 의하여 자아를 판단하게 되므로 농인들의 건전한 자아를 위해서 청인들의 변화가 필요하다. C씨와 같이 가족들이 모두 농인인 집에서는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과 교류를 하는 상황에서는 역시 어려움을 느끼며 특히 농인들은 가정생활이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인들에 대하여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불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청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농인들은 손님들과의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도 생활하면 친척이나 친구들이 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척들이 있으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죠. 가장 먼저 친척들과 수화로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누가 통역을 해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옆에서 통역을 해 주니 덜 답답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집에 없을 때는 의사전달하기 어려움이 많이 납니다. 아이들이 어른 말을 통역하는데 어려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대화를 이해 못하는 있고 어른들이 아이 앞에서 못할 이야기도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같이 오시면 말 통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많아요. 다른 친척들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어렵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집에 잘 오지 않아요. 아마 와서 이야기도 통하기 어려워 점점 방문이 줄어드는 것 같고 회사에 다니니 자주 만날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하니 답답하기는 같지만 우리는 사회생활 하면서 매일 겪는 것이라서 덜한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친척들이 올 때도 그렇지만 명절이나 집안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대화에 어려움이 가장 많습니다(A와의 면담).

농인들이 사회생활 할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인데 가정에서도 친척들과의 만남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A는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친척과 인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대화도 없고 한쪽에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많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더 이상의 대화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자녀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집안 대소사에 참석하지만 성장할수록 참석하더라도 다른 방에 있거나 아예 대소사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어른들의 태도에 따라서 자녀들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여야 혼란스러워하며 특히 오랫동안 가정생활을 해 온 농부모들은 자녀들과 본인들의 처지로 인하여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이 농인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면 농인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대하여 문화적·언어적 소수자로 생각(Gregory, 1992; Padden & Humphries, 1988; Schein, 1989; Snyder, 1987)하며 이러한 생활이 사회생활과도 연계되어 사회 활동 또한 위축되게 된다.

가족 중에서 부모와 동생은 청인이고 혼자 농인인 B는 가족과의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식구들은 나와 대화할 때 수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수화를 만들어서 우리 식구만 대화 하는 것이 있어요. 대신 나는 필요한 말은 구화로 대화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동생과 자주 싸우기도 하였어요. 동생보다 내가 더

많이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많이 냈어요. 어머니는 내 편을 많이 들어주시고 동생을 많이 야단쳤어요. 아마 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애처롭게 생각해서 청인인 동생을 더 나무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커서 서로를 이해하지만 나는 내가 농인이니까 청인인 동생에게 더 잘해준다고 생각했고, 동생은 자기보다 언니인 나를 더 잘해준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항상 나를 감싸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서로가 공부하느라 대화할 시간도 없고 다들 컸기 때문인지 싸우거나 하지는 않아요(B와의 면담).

B는 집에서 혼자 농인이며 수화를 모르는 청인 부모 밑에서 청인 동생과 함께 생활한다. 농인들은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의사소통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어려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간에 언어 문제로 깊이 있는 대화가 어렵다(김경진, 2004)고 한 것과 같이 농자녀와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청인 부모가 사용하는 음성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수화를 습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가족들 또한 농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수화를 배운다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인 형제들도 가족 구성원에 농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의사소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서로를 이해할 때까지는 의사소통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수반하여 생활하게 된다.

부인과 두 자녀가 청인이고 가장인 D만 농인인 가정의 생활은 어떤지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집은 나만 농인이고 아이들과 부인은 청인입니다. 부모님도 청인입니다. 부인이 청인이라서 얘기들과 대화도 자주 하고 잘 키우고 있지만 딸과 저는 그렇게 자주 대화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수화를 사용하지만 아이와 와이프가 청인이기 때문에 구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딸과 따뜻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나중에 어떻게 할까하고 미리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와이프가 청인이라서 참 다행입니다. 나도 학교 다니고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여서 구화와 또 청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익숙한데 내 자식과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곤란해요(D와의 면담).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장애 부모에 대하여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가장 걱정한다. D의 부모와 같이 농자녀를 둔 청인부모는 자녀가 자라서 청인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농인은 같은 농인 배우자를 만난다. 농인들의 결혼 형태는 농인들 간의 족내혼으로 결혼하는 농인들의 약 90%가 농인들끼리 결혼을 한다. 이와 같이 족내혼은 그들의 문화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전승하는 계기가



되며, 이는 민족이나 문화집단의 생존의 핵심(Rutherford, 1988; Schine & Delk, 1974)이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농인들의 결혼 형태도 이와 다르지 않다. 농인 남성과 청인 여성이 결혼하는 가끔 있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 양육과 가정생활을 함께 있어서 다른 가정보다는 불편함이 감소된다. 특히 어머니가 청인인 경우에는 농인 아버지의 역할은 줄어들게 된다. 어머니가 가정생활에 많은 부분을 맡아서 하게 된다.

농인들만 생활하고 있는 C가족에게 청인들과 비교하여 농인들의 생활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수화로 대화를 하니 그것이 가장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수화를 사용함으로써 해서 식사할 때나 일을 할 때도 수화를 해야 하니 우선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사용하여 대화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집에 전화기가 없다는 것이고 휴대폰이 나오기 전에는 팩스를 집에 두고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또 다른 것은 농인들이 네 명이 모여 산다는 것이죠. 농인 네 명이 함께 살아요. 우리 집과 청인인 친척집과 비교해 보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친척집은 말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은데 우리는 수화를 사용하니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청인들은 수화를 사용하지 않으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다들 너무 조용히 사는 것 같아요(C와의 면담).

C가족과 같이 농인들만이 사는 가정은 수화를 사용한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여러 가지 생활 관습들이 청인들과 약간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농문화는 수화를 사용한다는 공통적인 의사소통 양식으로 인하여 집단 정체감이 형성되고 이와 같은 생활양식이 같은 장애를 가진 농인들만의 조직이 형성되고 그곳에서 정보들이 공유되고 끈끈한 유대 관계 속에서 농문화가 생성된다. 농문화는 학교 체제, 부모의 언어에 대한 철학, 가족 체제 등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다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농문화를 하위문화로 구분하기보다는 농문화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위문화가 아닌 또 다른 독창적인 문화(Choi, 1995; Gregory, 1992; Padden & Humphries, 1988)로 볼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인들의 가정생활에서 나타나는 가정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농인들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수행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농인 가정은 농부모와 농자녀로 구성된 것 보다 농부모와 청인자녀로 구성된 가정이 많았다. 농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는 수화를 의사소통 수단으로 하며, 그에 따라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수화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농인 가정에서는 청인 가족과 함께 하는 가정보다 의사소통이나 생활면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보다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청인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농자녀는 가족들과의 대화에서 청인부모가 사용하는 음성언어를 사용하게 되며 이는 부모와 형제자매가 수화를 습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가족들 또한 농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수화를 배운다거나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농인들은 그들의 가정생활이 청인과 비교하여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농인 가족들은 개인적으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농부모들은 자녀 출산으로 인하여 세탁과 아기 돌보기 등 가사노동이 급증하였다. 또한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친척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청각장애로 인하여 자녀 양육 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인들의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농인 가정을 대상으로 농인의 가정문화를 연구한 결과 순수하게 농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많지 않으므로 농문화를 전승하고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농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농문화를 구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농인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정문화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1-2-3대가 농인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을 중심으로 좀 더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망된다.

## 참고문헌

- 김경진(1996). 청각장애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진(2004). 통합교육 장면에서 대학생의 농문화 인식연구. **재활복지연구**, 2.
- 김경진(2004). 청각장애 대학생의 문화 실태 연구. **언어치료연구**, 13(4).
- 김병하 역(1992). **질적 연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은정(2005). 청각장애 청소년의 삶의 세계: 중학부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 대구대학교 특수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준우(2003). 한국농청소년의 농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성규(1999). 청각장애아 언어 교육 방법론에 대한 패러다임 이동: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의

- 타당성. **특수교육학 연구**, 33(2),
- 최성규(1999b). 청각장애아 문화와 사고 : 청각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정에 기초하여. **제1회 공개연구발표회 수화·농문화를 생각하는 세미나**. 한국수화연구회.
- Brueggemann, B. J. (1999). *Lend Me Your Ear: Rhetorical of Deafness*. Washington. D.C: Gallaudet University Press. pp. 34-37.
- Choi, Sungkyu. (1995). *Cross-cultural Attitudes toward Deaf culture in a multi and singular culture society: A survey of residential school based teachers for the deaf who are deaf and hearing*. Ph. D, Ball State University.
- Gregory, S. (1992). The language and culture of Deaf people Implications for education. *Language and Education*, 6. 183-197.
- Moore, D. (2001). *Educating The Deaf*(5th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 Ogbu, J. (1996). "Variability in minority school performance" in *Minority education: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Ed. Evelyn Jacob & Cathie Jordan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Norwood., New Jersey.
- Padden, C., & Humphries, T. (1988). *Deaf in America: Voice from a cul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Paul, P. V., & Jackson, D. W. (1993). *Toward a psychology of deafness*.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Rutherford, S. D. (1988). The culture of American deaf people. *Sign language studies*, 59, 129-147.
- Schein, J. D., & Delk, M. T. Jr. (1974). *The deaf population of the United States*. Silver Spring, MD: National Association of Deaf.
- Simon, J. H. (1994). *An Ethnographic Study Of Sign Language Interpreter Education, American Sign Language, Deaf Culture*.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rizona.
- Storey, J.(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al theory and popular culture*,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Strong, M. (1995). A review of bilingual/bicultural programs for Deaf children in North America. *American Annals of the Deaf*, vol. 140-2, 84-94.
- Sue, D., & Sue, D. (1990). *Counseling the culturally different : Theory and practice*(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Synder, P. (1987). Organizational behavior in the cross-cultural delivery of service: A case example of an agency serving the Deaf. *Human Organization*, 46, 113-119.
- Tompkins, L. M. B. (2000). *Deaf adults' perspectives on their Bilingualism in American Sign Language and English*. Ph. D. Gallaudet University Press.

## Study on Family Culture of Deaf People

Kim, Kyung-Jin

Korea National College of Rehabilitation & Welfare

<Abstract>

We hav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to use the gathered data in better observing and understanding the deaf culture through their family lives. The result showed that deaf family typically consists of deaf parents and deaf children, deaf parents and hearing children and families where all members have hearing disability. For the last type of families, only the sign language is used as a communication tool, and the children acquire the sign language without much effort to learn it. Children with hearing disability who live with hearing parents use the spoken language their parents use to communicate. The major reason for this appeared as the parents' and brothers/sisters' inability to use the sign language. Deaf people do not understand people with no hearing impairment who think deaf people's family life would be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e family life of hearing people. Deaf families spend a lot of individual time compared to non-deaf families, and most of the deaf families experience increased household work such as laundry and child care once a child is born. Hearing disability also brings difficulties in child's education and hinders children from interacting with other family members during the family gathering and other family events.

**Key words:** Deaf, deaf people, deaf culture, deaf parents

---

논문 접수: 2007. 8. 4    심사 시작: 2007. 8. 5    게재 확정: 2007. 9. 21